'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u>.</u>



얘들아, 낚시해 본 적 있나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곳보다는 깊은 곳에서 잡아야 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 히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 성 경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힘이 빠지고, 마음도 지쳤죠.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처음엔 의아했어요. "선생님,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곧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함을 알려줘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나 친구 관계, 걱정되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즉,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 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i>-</i>	총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	이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5:1~11절	다	같	이
설 :	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설	卫	자
말 씀 나		다	같	이
합심기	E	다	같	이
축 복 기 :	E	부모가 자녀가	자녀어 부모어	게 게
주 기 도	물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기쁨을 배웠어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 1.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 2. 나도 힘들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